

영광군-이니, 소형 전동차 실증 협력체계 구축 ‘맞손’

현지 기관들과 업무협약...인증·표준화·인력양성 협력 실증사업 운영 기반 등 기술 검증·사업화 단계적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인도네시아 소형 전동 특수목적차 실증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인증·표준화, 운영 인프라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특수사업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주 기안아르·클롱롱 지역을 방문해 국제공동 실증 연구개발(R&D) 기술세미나와 업무협약(MOU) 체결, 실

증거점 및 운영환경 점검 등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영광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전남 신재생 BSS 기반 소형 CA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일환이다.

오는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수요와 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전동 특수목적차량의 해외 실증과 인증,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방문단은 먼저 국제공동 실증 R&D Kick 오프 행사와 기술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이모빌리티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관련 인증체계 등을 공유했다. 이어 현지 여건에 적합한 차량 성능과 규격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실증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지 주요 기관 4곳과는 분야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와는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BSS) 설치·운영 및 현지 전력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산업협회(AISMOL)와는 소형 전동 특수목적차량과 BSS의 인증·표준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INAKO와는 실증차량운영·유지관리와 국제공동 실증 R&D를 수행하고,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와는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 및 이모빌리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차량 기술개발뿐 아니라 배터리 교환·충전 인프라, 인증·표준화, 차량 운영·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 실증과 사업화에 필요한 분야를 포괄한다. 현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해 실증사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술의 현지 적용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에 적합한 소형 전동 특수목적차량의 실증과 관련 인프라의 운영 여건을 점검하겠다”면서 “기술 검증 및 사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특수사업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주 기안아르·클롱롱 지역을 방문해 국제공동 실증 연구개발(R&D) 기술세미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세계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26 국제 섬 포럼 in YEOSU KOREA’가 최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여수 국제섬포럼...지속가능한 섬의 미래 모색

국내외 전문가·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생태문화 보전 논의

세계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회의가 여수에서 열렸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약동하는 섬, 현장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2026 국제섬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섬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해 섬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생태·문화유산 보전 등을 논의했다.

관광과 개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섬 고유의 가치를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코커 태평양관광기구 대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한 약동하는 섬”을 주제로 섬 관광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코커 대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문화·자연유산 보전을 바탕으로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해양레저와 치유관광, 수산업 등 섬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다뤄졌다.

조우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섬 간 연계 관광과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으로 창출된 경제적 효과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한 섬 발전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섬이

관광자원이기에 앞서 주민의 삶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섬의 환경적 수용력과 고유성을 고려한 관광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제섬포럼은 섬을 단순한 관광·개발의 대상이 아닌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며 “섬박람회와 세계 섬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섬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논의와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화순적벽문화축제, 2500여명 발길

상수원보호구역 4.8km 숲길 도보 등 호응

(제)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제39회 화순적벽문화축제’에 총 2500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이서커뮤니티센터와 화순적벽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움서감서, 오감적벽’을 부제로 개최됐다.

축제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숲길 탐방, 환경음악회, 웰니스 프로그램 등 화순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램들로 채워졌다.

축제 기간 이서커뮤니티센터와 화순적벽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상시 운행해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망미정과 망향정 일원에서는

‘GEO 환경음악회’가 열려 세미클레식과 영화 OST, 국악 등의 선율이 적벽의 가을 풍경과 어우러지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망미정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차와 다과를 즐기며 ‘망미정 풍류다과상’도 함께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10일 진행된 ‘걸어서 만나는 적벽’은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소 출입이 제한된 약 4.8km의 구간을 직접 걸으며 전망대에서 적벽과 동북호의 비경을 감상했다. 이어 오후에는 적벽을 배경으로 요가와 명상을 즐기는 웰니스 프로그램 ‘적벽, 섬’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제39회 화순적벽문화축제 개최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청

박성현 광양시장, 아태도시 서밋서 비전 발표

〈아시아 태평양 도시〉

‘도시의 지속 발전’ 주제...“해상 네트워크 가능성 공유”

광양시는 박성현 시장이 19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에 참석해 도시의 지속 발전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주요 도시들과 교류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아태도시 서밋은 1994년 일본 후쿠오카시의 제안으로 출범해 30여 년 간 아시아 태평양 도시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국제회의다.

“협력과 공동창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후쿠오카 서밋에는 12개국 30개 도시의 시장 대표단과 국제기관, 민간기업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양시를 비롯해서 부산, 포항시, 외국에서는 싱가포르, 마닐라, 스마랑, 코롱시아 누르빌 등 태평양 도시들이 참가한다.

박성현 시장은 서밋 첫 번째 세션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공동창조’에 발표자로 나서 ‘민관협력의

로 여는 새로운 마당길,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광양시의 해상교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박성현 시장은 또 서밋 기간 동안 싱가포르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우호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부시장, 서밋 개최지인 후쿠오카시장 등 주요 도시관계자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박성현 시장은 한일 카페리 추진을 위해 하카다항과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등을 방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성현 시장은 “아태도시 서밋은 광양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찾는 뜻깊은 자리다”며 “광양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해상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아시아 태평양 도시들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천 기자 lkjin@gwangnam.co.kr

곡성, 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직영시설 관리대행 전환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시설별로 분산된 운영·관리 체계를 통합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031년 9월 14일까지 5년간 추진된다.

주요 관리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9개소, 곡성위생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70개소 등이다.

특히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곡성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 관리대행 방식으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질관리와 설비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응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나주시농기센터, 바나나 양액 분화재배 성공

내달 말 수확...공간 효율적 활용 등 국내 최초 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 추진한 바나나 실증 재배 시험에 성공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실증시험은 지난 3월 30일 바나나 모를 화분에 식재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시설하우스 내 온·습도 등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바나나 전용 양액을 생육단계에 맞춰 공급하며 약 8개월간 생육 특성을 관찰했다.

이번 실증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나나 전용 양액을 활용한 분화(화분)재배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존 바나나 재배가 주로 시설하우스 토양에 직접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150ℓ 화분 용기에 바나나를 식재한 후 생육단

계에 맞춰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증시험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바나나는 시설하우스 환경에서 양호한 생육 상태를 보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과실이 생육하고 있어 11월 말 첫 수확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바나나 전용 양액을 활용해 분화 상태에서 재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화재배는 토양재배에 비해 뿌리 주변의 양·수분 관리가 용이하고 생육단계에 따른 양액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정밀한 재배 관리가 가능하다.

또 재배 용기의 이동과 배치가 가능해 시설하우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양액 제어 시스템과 환경제어 기술을 접목할 경우 스마트농업 기반



의 바나나 재배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아열대 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시험을 통해 나주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과 재배 기술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